

“불고기 드시고 힘내세요”…15년째 ‘나누는 삶’ 훈훈

더 한우사랑 대표 부부, 어르신 초청 ‘행복밥상 나눔잔치’

“1년에 한 번 어르신들께 봉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식사를 통해 안부를 확인할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어버이날을 기념해 행복밥상 나눔 잔치가 열린 8일 오전 11시께 동구 학운동 더 한우사랑 식당.

김홍희·이경희 더 한우사랑 대표 부부가 마련한 ‘행복밥상 나눔 잔치’에는 지역 어르신 600여명이 초대돼 푸짐한 식사를 즐기며 웃음꽃을 피웠다.

이른 아침부터 행사를 준비한 자원봉사자들은 식당 한쪽에 몽골 텐트를 설치해 어르신들이 햇볕을 피해 편안히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오전 11시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행복한 발걸음으로 식당 안으로 향했다.

이날 김홍희 대표는 정성껏 준비한 650인분의 백반을 어르신들께 대접했다.

따뜻한 밥과 국, 푸짐한 불고기와 수육, 향긋한 도토리묵, 달콤한 수박과 오렌지까지 풍성한 만찬에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연신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금세 식당 안팎은 수백 명의 어르신들로 가득 찼고, 외부 좌석은 물론 식당 1·2층까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한 어르신은 반대편 식탁에 앉은 친구를 향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는데 여기서 다 만나네”라고 큰 소리로 말했고, 이에 화답하듯 “나는 서울 딸네 집에서 며칠 전에 내려왔어”라고 답하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김홍희·이경희 부부’ 행복 전파 650명에 정성 가득 한끼 웃음꽃 “재밌값 비싼데” 연신 감사 인사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모습을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훈훈하게 만들었다.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이경희 대표의 손을 붙잡고 “덕분에 맛있는 밥 잘 먹었어”, “이렇게 챙겨주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네”라며 연신 고마움을 표현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식당을 찾은 이섭심씨(92·여)는 “좋은 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니 고맙고 행복하다”며 “장사하느라 힘들 텐데 노인들까지 챙겨줄 생각을 다 하니 기특하다”고 전했다.

행사장을 찾은 민정남씨(91·여)는 “물가가 올라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힘든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을 잊지 않고 챙겨주니 고맙다”며 “따뜻한 밥 한 끼 배불리 먹고 힘내고 간다”고 미소지었다.

오진수 학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73)은 “어려운 시기 어버이날을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식사제공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돼 행복하다”며 “오랫동안 집에서 나오기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행복밥상을 계기로 바깥나들이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경희 대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재



어버이날인 8일 광주 동구 학동 더 한우사랑에서 열린 ‘어르신 행복밥상 나눔잔치’에서 김홍희 대표가 어르신들께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나르고 있다. 김태규 기자

룻값도 많이 오르고, 찾아주시는 어르신들도 늘어서 예년에 비해 비용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어려운 경기 속에서 적지 않은 지출이지만, 그렇다고 손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1년에 한 번 이렇게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을 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다”며 “혹시라도 장사가 너무 안되거나 몸이 아파서 이 봉사를 못 하게 되는 날이 올까 봐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행복밥상 나눔 잔치’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학운동 행정복지센터와 새마을회, 자치협, 주민자치회 등 민·관이 협력해 음식 조리, 어르신 안내, 음식 배분, 청소 등 다방면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훈훈함을 더했다.

이수민 기자

24시 응급의료센터 개소 전남대 동물병원, 의료 공백 해소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은 지역 반려동물의 응급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24시 응급의료센터’를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은 평일 주간 예약 진료 중심으로 운영돼 야간이나 공휴일에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특히 중증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어 지역 내 응급 의료 시스템의 부재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은 응급중환자의학과 노웅민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응급 진료 전담 의료진 배치와 응급실 및 중환자 치료 시설 구축을 완료했다.

이로써 연중무휴 24시간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응급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또한 지역사회 내 응급 진료 공백 해소뿐 아니라 수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들이 실질적인 응급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환준 기자

광주교육청, 초·중·고 수포자 없는 학교 만든다

학교·학년 수준별 프로그램 도입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수학을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수포자 없는 학교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에 맞춰 수학 학습력을 키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학년 수준별로 지원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체력 중심 즐거운

수학’, 중학교 ‘성장 중심의 개념수학’, 고등학교 ‘미래 진로 설계 수학’이 핵심방향이다.

초등학교 학생은 체험을 통해 수학을 친숙하고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수학 체험교실 운영’, ‘AI 기반 맞춤 학습’ 등을 진행한다.

중학생은 수학 개념을 탄탄히 다지고, 학생 스스로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사고력 중심 수업 ‘성장 중심 수학’을 운영한다.

고등학생은 진로를 고려한 ‘미래 설계 수학’ 교육을 준비했다.

수리논술, 수학 면접 특강, 진로 연계 교육자료 제공, 동아리 중심의 수학 성장 지원 등 학생들이 수학을 통해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초·중학교 15개교에서는 ‘수학이 온다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수학 학습에서 성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급이 변화하는 전환기에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은 만큼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중학교 3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수학 적음

력 향상 특강을 실시한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 실생활 수학 연계 대입 면접 자료집도 개발·보급한다.

학생들의 수학 자존감 회복을 위한 △수학교육 현장 연구원의 학생 상담 △수학 교사 2인이 함께 수업을 하는 ‘마스코트(Math CO-Teaching)’를 비롯해 진로 연계 수학 프로그램 △‘수학이 있는 강연(Math Lecture)’ △‘수학 독서’ 등도 선보인다.

이정선 교육감은 “수학은 삶을 보는 시각과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도구”라며 “수학이 학생들의 꿈과 진로를 향한 든든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셀이아의 특별한 케어!

영롱하게 빛나는 생기있는 피부,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약속

건강한 피부 | 빛나는 삶 | 특별한 케어

여러분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길 바랍니다

문의 : 080-385-0080



CELLIA